

‘의향 전남’ 보훈대상자·가족 예우·지원 강화

참전명예수당 인상·보훈명예수당 확대

독립운동사 편찬 등 보훈문화 확산도

전남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강화 등 올해 보훈정책 추진에 박차를 기한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돋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시·군 참전명예수당까지 포함하면 연령과 지역

에 따라 최대 월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전몰·순직군경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지원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정책 기조에 맞춰 보상과 예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대상까지 포함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예우 범위를 넓힌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부부 합산 연 100만원이던 진료비 지원 한도를 유족과 배우자 각각 연 100만원으로 확대해 고령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보다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2029년 국립장릉호국원 개원 전까지 해남 남도 광역재단공원에 운영 중인 임시안치소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정하던 이용 범위를 배우자까지 확대해 제도적 공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마지막까지

준중받도록 보훈 가족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수당 인상과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남 독립운동사를 발간해 ‘의향 전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다.

1895년 2차 동학농민운동부터 1945년 광복 때 까지 전남에서 펼쳐진 독립운동과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2027년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독립유공자 개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 전남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 가치를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으로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2026년 전남 보훈정책은 수당 인상과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등 보훈의 가치를 역사와 일상에서 함께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감되도록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월 5만원 → 월 7만원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전몰·순직군경 유족 → 전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추가



독립유공자 유족 진료비 인상

연 100만원 (부부 합산)

연 200만원 (부부 각 100만원)



호국원 개원 전 임시안치소 운영

배우자 까지 확대



“부강한 광주·전남” 강기정 시장 출판기념회 성료

김영록 지사 등 시민 1만여명 참석

‘행정통합·AI·반도체’ 비전 제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민들과 만났다.

강 시장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을 선보이며 부강한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는 별도 식순 없이 참석자들 간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시민 1만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강 시장은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고 정말 일을 잘하는 분”이라며 주거 세웠다.

김 지사는 또 “행정 통합과 관련해 이제 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광주·전남의 엄청난 산업 발전을 약속하셨다”며 “강 시장과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시·도민 염원을 반드시 성사시켜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갖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죽전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경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정세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축제공〉

군 전국무총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

강 시장의 저서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은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미래 산업의 중심 도시로 대한민국 전면으로 재등장하는 광주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의 탄생과 현재, 대한민국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음 통합돌봄’, 대한민국 표준이 된 광주시 혁신정책 등이 소개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저의 25년 정치 여정에서 가장 가슴 떨릴 정도의 큰 판”이라며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역사에 첫 등장한 광주는 전남과의 대통합을 통해 부강한 도시로 화려하게 두 번째 등장을 해야 할 때다. 부강한 광주·전남을 향해 시민들의 손을 맞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의 밤, AI 중심도시 광주

기억돼 온 광주의 첫 번째 등장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기록됐다면, 이제는 ‘부강한 도시 광주’로서의 두 번째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의 밤, AI 중심도시 광주

기억돼 온 광주의 첫 번째 등장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기록됐다면, 이제는 ‘부강한 도시 광주’로서의 두 번째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의 밤, AI 중심도시 광주

전남 ‘국민성장펀드’ 아이디어 공모

道, 5년간 50조원 유효 목표 사업 발굴

전남도는 11일 “정부의 대규모 정책금융인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형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in 전남 프로젝트 발굴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를 선제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5년간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민간투자 유효목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금융 유효지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프로젝트 후보군을 사전 확보할 방침이다.

공모에는 전남에서 추진할 투자 프로젝트 아이디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공모 대상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활용이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 ▲차세대 전력망(MG), 분산에너지 특구 등 선도사업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수소·우주·방산·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K-디즈니, 관광·농림·해양수산 등이다.

전남 특화산업과 연계해 민간투자 참여와 수익 창출구조를 갖추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회원 가입 자격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연회비는 3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접수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전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제안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제안은 실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에 따라 상금을 수여한다.

/양시원 기자

광주 ‘희망장난감도서관’ 인기몰이

광주시청 내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지난해 549명의 신규 가입과 6천108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영유아 가정의 필수 육아 지원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49명의 부모가 희망장난감도서관에 가입했으며 총 이용 건수는 6천108건을 기록했다.

희망장난감도서관 가입자는 2023년 378명, 2024년 463명, 2025년 54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입자 중 75%(410명)는 최초 가입자로 집계됐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시청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회원 대상으로 최장 3주일까지 장난감을 대여하는 육아 지원시설이다.

회원 가입 자격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연회비는 3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변은진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 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률80%) 분양가 : 3.3㎡/45만원

<1차 15가구>

<2차 6가구>

성황리 입주완료

입주완료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 +관리사 +휴게실 (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 (기술지도)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송 이 마 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